

‘수출 부진’ 하반기 고용 둔화세 주목...KDI 성장률 더 낮추나

통계청, 9일 하반기 첫 고용동향 발표
KDI, 10일 韓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 흐름이 하반기 첫 고용지표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 같은 경기 불확실성을 감안해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 하향 조정할지도 관심이다.

5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9일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올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은 꾸준히 30만~4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초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올해 취업자 수 전망치를 기존 10만명에서 32만명으로 대폭 상향했다.

6월 취업자 수는 288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3000명 늘어 2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4월(35만4000명)과 5월(35만1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폭이 축소되는 흐름이어서 30만명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고용의 질을 따져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

리기 힘들다. 6월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34만3000명 증가해 이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되레 줄었다. 경제 허리층인 40대는 취업자 수는 1년째 하락세다.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세도 지속 중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고용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출 상황, 경기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면 증감 요인이 산재해 향후 고용 흐름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7일 8월 경제동향을 내놓는다. KDI는 지난달부터 한국 경제가 제조업 부진이 일부 완화되며 경기 저점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 부진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바닥을 찍으면서 ‘상저하고’ 경기 전망에 따라 하반기 반등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이 지속되고,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지연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최근 들어 심상치 않은 국제 유가 상승세도 하반기 경기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오는 10일 KDI는 이 같은 대내외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올해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KDI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유지하다 지난 5월에는 0.3%포인트(p) 낮춘 1.5%로 수정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감소가 장기화하는 등 상반기 제조업 부진이 지속되고, 내수 침체와 투자 위축 등이 한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KDI가 지난 5월 성장률을 수정한 뒤로도 국제기구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1.5%에서 1.4%로 조정했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3%까지 낮췄다. 정부도 기존 전망치보다 0.2%p 낮춘 1.4%를 제시한 상황이고, 한국은행은 일찌감치 1.4%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올해 누적된 나라살림 적자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월간 재정동향(8월호)’을 발표한다. 올 들어 국제 수입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지출도 크게 줄어 정부 살림살이를 가능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개선됐는지 관심을 모은다.

변용일기자



기름값 4주째 상승하며 휘발유 리터당 1630원 돌파
국내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4주 연속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전국 8월 첫째주 휘발유 판매가격은 1,638.8원/ℓ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39.5원 상승, 경유 판매가격은 1,451.4원/ℓ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39.6원 상승했다. 사진은 6일 서울 한 주유소 휘발유, 경유의 판매가격이 표시된 모습.

여름 휴가 어디로 갈까...바캉스 할인전

여름 극성수기를 맞아 이커머스업체가 '마지막 바캉스' 할인전에 나선다.

국내·외 여행상품은 물론, 당일 나들이 상품까지 대폭 할인해 8월 바캉스를 준비 중인 여행객들을 공략한다.

6일 이커머스업체에 따르면 티몬은 이달 말까지 '라스트썸머' 프로모션을 열고 국내외 특가 여행상품을 판매한다.

티몬은 370여개 특가 팀을 비롯해 1560여개 국내외 여행상품을 엄선하고, 8% 전용 할인쿠폰과 국민·현대·롯데카드 8% 결제할인까지 더해 최대 16만원까지 중복 할인 등 압도적 혜택을 전한다. 인기 휴양지로 꼽히는 ▲코타키나발루 5성급 리조트 5일 패키지(최종 혜택가 39만9000원~), ▲푸쿠옥 BEST 리조트 5일 자유여행(최종 혜택가 45만4000원~) 등 해외여행 상품은 선착순 한정 특가로 선보인다.

▲오션월드 종일권&구명재킷 대여 패키지(2만7900원~), ▲제천 해브나인&덕산 스피드 종일권(2만4900원~) 등 당일 나들이 상품도 준비했다.

무더위를 피해 즐길 수 있는 ▲전국 상상체험 키즈월드 종일권(1만9000원~)을 비롯해, 인기 공연 ▲뮤지컬 '베베카' 관람권(6만6000원~), ▲뮤지컬 '모차르트!' 관람권(4만9,000원~) 등 실내 나들이 상품도 있다.

쿠팡의 여행 전문관 '쿠팡트래블'은 국내·외 여행상품을 대폭 할인해 선보이는 '썸머 바캉스 BIG SALE 프로모션'을 20일까지 진행한다.

와우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는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을 포함해 약 120여개의 상품이 준비됐고, 최대 할인율은 60%에 이른다.

우선 국내여행 상품은 숙박, 티켓·패스, 제주여행 등으로 구성돼 있다. 캐리비안베이, 롯데워터파크, 캘리포니아비치, 블루캐니언, 원마운트, 고양레저타운 등 주요 워터파크·수상레저부터 전국 풀빌라, 수영장 보유 호텔 등 여름 인기 할인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주요 국내여행 상품으로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종일이용권 (60% 할인) ▲원마운트 워터파크 (52% 할인) ▲캘리포니아비치 골드1시즌 종일이용권 (47% 할인) ▲캐리비안베이 골드 1, 2시즌 동일권 (40% 할인) 등이 있다.

주목할 만한 해외여행 상품은 ▲일본 오사카 자유여행 (5% 할인) ▲일본 오사카 주유패스 (10% 할인) ▲다낭 패키지여행 (5% 할인) 등이다.

G마켓은 지난 3월 론칭한 여행 전용 라이브 방송 프로그램 '놀러가'를 통해 다양한 해외 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뉴시스

“K제품, 역직구 시장서 뜬다”...‘일본마케팅 서비스’ 출시



인플루언서 AI(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에이든랩은 최근 성장하는 일본 온라인 시장에 맞

에이든랩, 일본 온라인 시장서 매출 유도

취 일본 이커머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에이든랩은 중화권과 동남아, 미국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와 IT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한국 화장품 역직구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일본 시장을 위한 전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에이든랩 관계자는 “일본 4대 이커머스 마켓(쿠팡, 라쿠텐, 아마존 재팬, 야후쇼핑)에서 일본 1020세대가 K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역직구 고객층이 두터워지고 있다”며 “그동안 K-뷰티가 시장을 주도했다면 지금은 생활용품, 미용기기, 다이어트 식품 등

다양한 K-제품이 역직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강화한 푸드올로지는 지난해 말 일본 대형 온라인 플랫폼인 쿠팡재팬에 입점 후 에이든랩의 서비스를 통해 지난 6월 기준 매출이 14배, 구매전환율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에이든랩은 잠재력 있는 K-브랜드를 발굴해 ▲일본 이커머스 입점·운영 ▲일본 인플루언서 콘텐츠 마케팅·협업 ▲일본 이커머스와 인플루언서 빅데이터 솔루션 ▲일본 고객 리뷰 AI분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슬비기자



폭폭 찌는 여름 날씨에...보양 간편식 매출 ‘쑥’

초복에서 말복으로 이어지는 ‘삼복기간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는 옛말처럼, 연일 계속된 폭염에 보양식을 찾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고름이 영양으로 외식을 선택하기 보단 집에서 또는 휴가지에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간편식·믹키트가 인기다.

5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삼계탕 가격은 1만5680원으로 전년 동기(1만4356원)대비 9.22% 상승했다. 3년 전 1만3406원과 비교하면 17% 올랐다.

이 같은 외식물가 상승에 소비자들은 비교적 저렴하면서, 만드는데도 부담이 적은 간편식을 택하고 있다.

실제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 6~7월 HMR(가정간편식) PB(자체 브랜드) ‘요리하다’의 삼계탕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 가량 매출이 증가했다.

이에 유통업계는 관련 상품 출시를 지속하며, 기획전도 진행하고 있다.

롯데마트의 경우 오는 16일까지 PB 간편식 ‘요리하다’ 할인 행사를 연다. 여름철 보양식을 대표하는 ‘요리하다 강화삼계탕(1kg)’과 ‘요리하다 왕갈비탕(900g)’은 엘포인트(L.POINT) 회원에게 1500원 할인해 각 7490원에 선보인다.

여름철 야식 안주로 즐기기에 좋은 ‘요리하다X클라우드 태국식 새우팟타이(71g)’와 ‘요리하다X처음처럼 한우곱창전골(912g)’도 약 15% 할인해 각 1만2990원, 1만9990원에 판매한다.

이랜드리테일과 오아시스마켓이 손을 잡고 오픈한 온라인몰인 ‘김소아시스’는 이날부터 ‘풍천 장어’를 사전예약으로 판매한다. 시세 대비 약 10% 저렴하다.

김소아시스에서 판매하는 장어는 집에서 쉽고 맛있게 장어를 구워 먹을 수 있도록 국내산 100% 풍천 자포니카 장어만을 엄선해 세척한 후, 머리와 뼈·내장 등은 깔끔하게 손질해 소스와 초생강까지 넣어 세트로 구성했다.

서선욱기자

전용 59㎡ 소형 인기...청약경쟁률 5년 만에 중대형 추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 현상

올해 들어 전용면적 60㎡ 이하 중소형 타입 청약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5년 만에 중대형 경쟁률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웹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전용면적 60㎡이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3.08대 1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60~85㎡의 경쟁률은 7.02대 1이었고, 85㎡ 초과 면적은 9.19대 1이었다.

중소형 타입이 중대형을 웃돈 것은 2018년

이후 약 5년만이다. 지난해 전국 기준 60㎡ 이하 면적의 경쟁률은 6.82대 1, 60~85㎡ 6.35대 1, 85㎡ 초과 10.76대 1을 기록했다. 2021년은 각각 10.36대 1, 15.83대 1, 55.67대 1을 보여 중대형 평면 선호도가 두드러졌다.

중소형 인기가 치솟은 것은 큰 타입보다 가격이 저렴해 구매 자금 부담이 덜하기 때문이다. 분양가가 계속해서 오른 데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자 올해 겨자 먹기로 소형 면적을 찾는 수요자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발코니 확장시 84㎡에 못지않은 넉넉한 내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드레스룸,

팬트리 등 공간 효율을 극대화한 설계가 다수 도입된 점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인포 관계자는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하면 전용면적 85㎡이하는 1순위 공급량의 60%를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해 가격이 낮은 수요층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규제지역이 해제되어 다주택자도 1순위 가점제 청약이 가능해 갈아타기를 원하는 유주택자들의 당첨도 노려볼 수 있다”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약 시장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고, 대부분 브랜드 아파트도 분양도 순조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